

## 오늘의 한국 벤처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

제5차 '벤처CEO포럼' 개최 ... 벤처기업의 성공사례를 통해 정체성 확립 필요

전자신문과 벤처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매일경제TV가 후원하는 '제5차 벤처CEO포럼'이 지난 20일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벤처기업의 정체성 형성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조직사회학적인 관점에서의 벤처의 정체성과 문화에 관한 연구결과를 서울대 장덕진 교수, 연세대 박찬웅 교수, 연세대 한준 교수 등 3명의 연구진이 발표했다. 뒤이어 경북대 이장우 교수의 사회로 비트컴퓨터 조현정 대표, 조선일보 우병현 기자, 서울시립대 이춘우 교수, 일신창투 고정석 대표가 패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회 : 경북대 이장우 교수 (좌측 첫번째)

공동발표자 : 연세대 박찬웅 교수(좌측 두번째), 서울대 장덕진 교수(좌측 세번째), 연세대 한준 교수(우측 첫번째)

장덕진 (서울대 교수) : 벤처기업의 등장은 완만한 진화가 아니라 균형이 중단되면서 새로운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대두되는 것을 의미하는 Punctuated equilibrium(단절이 존재하는 균형)으로 설명된다. 1992년부터 1999년 말까지 한국경제는 일종의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 시점에 새로운 특징을 가진 벤처기업의 창업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다.

벤처가 등장할 수 있는 있었던 배경은 정부정책의 변화, 벤처캐피

털과 코스닥 시장 등 기업금융의 변화, 신경제의 도래 등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박찬웅 (연세대 교수) : 벤처기업의 성과는 양적인 측면, 조직적 영향, 사회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벤처의 비중 등을 통해 양적인 면에서의 성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조직적 측면에서 벤처는 능력위주 인사에 입각한 분배, 수평적 의사결정,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지배구조, 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등 뚜렷한 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고 이것은 다른 유형의 조직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벤처는 창업과 혁신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정당성을 높이고 경제위기 이후

고용창출 등의 기여를 했다.

벤처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벤처기업의 집합적인 정체성 확립을 통해 예비 벤처기업들과 사회·경제·문화적인 자원을 견인해야 하며, 소수 비리기업에 의한 벤처의 부정적 측면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벤처가 2차단계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준 (연세대 교수) : 벤처 경제의 기초는 '창조적 혁신', '기회포착을 위한 기민성(모방)'을 꼽을 수 있다. 벤처의 정서적 기초는 경제 주체들 사이에 전파되어 낙관적 분위기와 신뢰가 공유되는 '동물적 감각(animal spirit)'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벤처의 사회적 기초는 집단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새로운 조직모형의 집단적 실험과 학습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국 벤처는 다양한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정체성이 뚜렷하지 못한 경향이 있으며 결국 다수의 무임승차적 기회주의 시도를 양산했다. 기존 정체성의 내용을 변화시켜 긍정적 측면을 강화하는 등 적

극적으로 벤처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벤처의 정체성을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 :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의 변화, 전통기업의 IT화, 이공계에 대한

관심 증대, 기업간 인력교류, IT 강국의 위상제고 등 그동안 벤처기업이 보여준 긍정적인 성과는 후발 벤처를 통해 지속될 것이다.

우병현 (조선일보 기자) : 벤처문화는 기존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행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탄생했다. 지난

1990년대말에 벤처가 새로운 산업권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벤처기업의 침체와 더불어 주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으며 벤처기업만이 그 대안이라는 점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 : 모험과 청교도 정신에 기초한 서구와 달리 유교와 농경 문화 속에 환난극복의 관점에서 벤처정신을 평가받았다. 이제 능력위주의 수

평적 관계, 사회환원의 선순환 등을 통해 벤처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한다.

고정석 (일신창업투자 대표) : 우리는 지금 벤처의 탄생과 성장, 소멸이라는 사이클의 한 지점에 있을 뿐 정체성의 문제나 위기에 봉착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1조원의 기업가치를 가진 벤처가 탄생했듯이 가치창조를 하는 기업이 벤처이며, 이제는 벤처기업간 비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